



Global Fine Arts 세계미술

▲ Nuit des musées, Luxembourg - 2009
Casino-Luxembourg, Forum d'art contemporain
Bouées, tissu polaire et mousse
Production Casino Luxembourg

델핀 푸이에(Déline Pouillé)

델핀 푸이에(Déline Pouillé 프랑스 여성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스러운 형상들이 아니다. 변질 되고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형상들이 그 자체로서의 독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물의 한부분이 잘못 연장되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가 과상하게 변형된 그런 분위기를 던진다.

그녀의 작업은 우선 종이로 패턴을 그린 후, 천으로 제작을 하고 그 안에 물질을 집어넣어서 불륨을 만들어낸다. 마치 제단사가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 내는 것은 실용성을 띄고 있지 않은 과상한 물체들이다. 물렁거리고 살색으로 대부분 구성 돼있는 이 구조물들은 마치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느껴진다.

그것을 인간의 몸의 한 연장부분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한 입히기도 하고 혹은 개별적인 대상으로 진열하기도 한다. 또한 그녀의 이런 작품들이 전시 중 파손이 된 부분은 다시 꿰매고 밴드를 부쳐서 고치고 치료하는데 이것 또한 그녀의 작품세계의 한 부분이다.

과연 이러한 오브제는 어떤 의미일까? 벽에 걸리거나 천장에 매달린 작품들은 마치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며, 인간의 몸에 착용 되거나 그리고 한 부분의 역할로 도입됨으로서 하이브리드한 인간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오브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분리되지 않은, 불편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한 그런 부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부분이 바로 우리라는 대상을 반대로 인식하게 만들지 않나 싶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나라는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돌아 볼 수 있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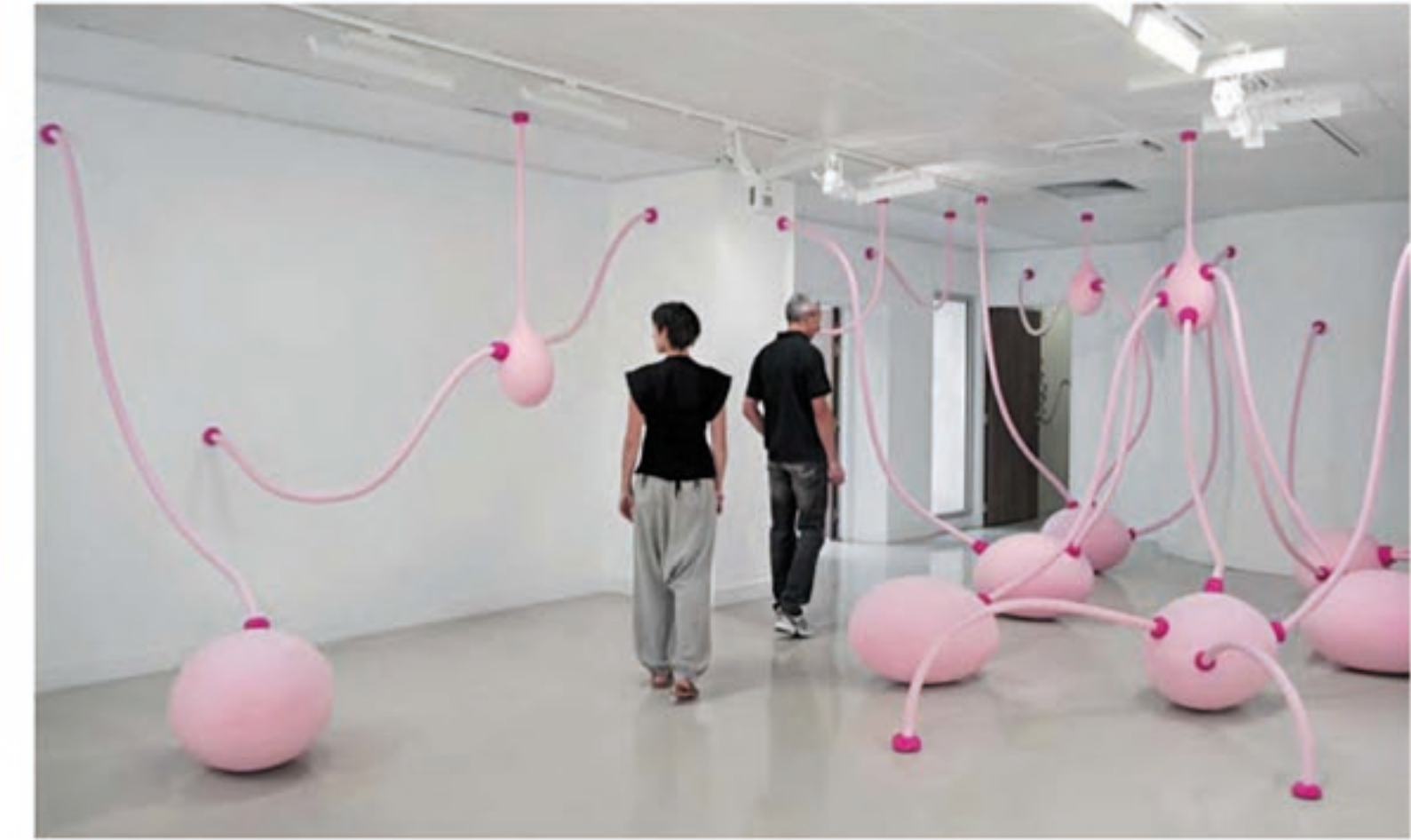
그녀의 작품은 사이트를 통해 더 관찰해 볼 수 있다.
<http://www.delphinepouille.com>

파리특파원 : 이수경

델핀 푸이에(Delphine Pouille)



▲ Déline Pouillé
Coiffe realised for Artificial creature, Nuit des méceènes
MUDAM Luxembourg, Musée d'Art Moderne Grand-Duc Jean,
Luxembourg
2013
Tissu et mousse polyuréthane, 80 x 30 x 30 cm, Production
MUDAM
Photographie : Gaëlle Astier-Perret



▲ Thruoïde Macropus, Part I., installation,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s
Vue d'exposition Les Infiltrés, 2010, La Graineterie, Houilles
Production La Graineterie



▲ Le Bounelet et Vénus (Thrums), 2010-2013,
mousse polyuréthane, tissu, tuyaux d'arrosage, épingles &
Oil drawings, 2012,
crayon, pastel gras et huile sur papier
Vue d'exposition Les Convalescents,
Galerie du Haut Pavé, Paris, 2013



▲ Thrums dans une serre (jardins de l'Hôtel de Ville de Mayenne)
Nuit Blanche, MAYENNE - 2011
Tissu, mousse polyuréthane, tuyaux d'arrosage
Production Nuit Blanche Mayenne